

청소년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학업성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용석 (순천대학교 물류학과)*

이재은 (순천대학교 경상학부 무역학전공)**

강지원 (순천대학교 경상학부 무역학전공)***

김선구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

한가록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학업성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하고 있다. 순천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25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즉,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은 모두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강조하는 것과 일치되는 결과로서 불확실한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위험감수성이 높을수록, 기존의 틀을 탈피할 수 있는 혁신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진취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창업의지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학업성적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학업성적은 청소년들의 진취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부(-)의 방향으로 조절한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즉, 청소년의 진취성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그러한 긍정적인 경향은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던 청소년 기업가정신에 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의미 있는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주제어: 청소년 기업가정신,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 학업성적, 창업의지

1. 서론

현재 많은 국가들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을 강조하고 있다(안선영 외, 2011). 우리 정부도 새로운 국가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하고 있다. 창조경제란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과 과학기술을 접목해 새롭게 일 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개념이다(창조경제타운, 2016). 강경균 외(2015)는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기업가정신과 창업을 제시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사회 안정과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부의 학자들은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 창업을 강조하고 있다(이유진 외, 2015).

통계청(2016)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청년실업률은 9.2%에 이르며, 이 수치는 IMF이후 최대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청년 실업문제의 해결책으로 청년 창업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이유진 외, 2015).

현대 사회에서는 소자본 창업이나 초기자본 없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창업에 대한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김영문·전지은, 2009). 하지만 창업은 불확실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성공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Blanchflower & Oswald, 1998; Knight, 1921; 안선영 외, 2011; 한정희·김정호, 2013). 예컨대 안선영 외(2011)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제시하였으며, 이와 유사하게 오해섭 외(2014)도 6612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들이 창업을 고려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창업의지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

* 제1저자, 순천대학교 물류학과 교수(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장), drasto@sunchon.ac.kr

** 교신저자, 순천대학교 경상학부 무역학전공 조교수(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스타트업PLUS센터장), sky2u@sunchon.ac.kr

*** 공동저자, 순천대학교 경상학부 무역학전공 학생, k_jiwon_cc@naver.com

**** 공동저자,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총괄팀장, ksgent@sunchon.ac.kr

***** 공동저자,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 매니저, cahgr1211@sunchon.ac.kr

· 투고일: 2016-07-07 · 수정일: 2016-08-31 · 게재확정일: 2016-09-30

임을 지적하고 있다(김영중 외, 2014; 장수덕·이재훈, 2013; 조준희·김찬중, 2015; 한정희·김정호, 2013). 이처럼 창업과 기업가정신 간의 관계가 지닌 실무적, 학문적 중요성으로 인해 많은 학자들은 창업과 기업가정신 간의 관련성에 대해 활발히 연구를 진행해 왔다(김영중 외, 2014; 유봉호, 2013; 윤성욱·박성일, 2008; 이미자·김중규, 2013; 이정원 외, 2013).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창업의지의 선행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해 왔다(김영중 외, 2014; 박지유·양혜술, 2014; 윤남수, 2012; 이정원 외, 2013).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창업역량, 기업가정신, 창업동기, 개인의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의 통제 등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김영중 외(2014)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가정신의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등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부류의 일부 학자들은 많은 특성들 중에서도 기업가정신을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하고 있다(김영중 외, 2014; 이신남, 2014; 이주현·변광학, 2011; 조준희·김찬중, 2015; 한정희·김정호, 2013).

두 번째 부류는 창업성과의 선행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유봉호, 2013; 윤성욱·박성일, 2008; 이미자·김중규, 2013).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성장의도 등이 창업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이미자·김중규(2013)는 창업의지와 기업가정신이 창업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학생 이상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대학생이나 일반인들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청소년들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을 청소년들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청소년들은 정보처리 능력이 폭발적으로 향상되는 특징을 보인다(박재홍·김성환, 2011).

박재홍·김성환(2011)은 정해진 시간 동안 많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정보처리 속도, 한 번에 여러 기억이나 개념들을 처리하는 작업 기억,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 등이 청소년기에 크게 향상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인재 외(2008)는 창의성과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과 같은 역량이 청소년기에 급격히 향상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본다면, 청소년기는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은 향후 청년 창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창업진흥원과 같은 정부기관들은 청소년 창업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

으로 비즈쿨 (Biz-cool)을 운영하거나 다양한 행사에 기반한 기업가정신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청년창업 활성화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김영중 외, 2014; 이신남, 2014; 이주현·변광학, 2011; 장수덕·이재훈, 2013). 기업가정신은 선천적인 특성이 아니라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강경균 외, 2015).

또한 기업가정신은 특정 연령대에서만 국한되어 형성되는 것이 아닌, 모든 시기에 걸쳐 형성될 수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새로운 정보나 특성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기업가정신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게 할 수 있다. 만약 청소년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정신 교육이 향후 청년창업 활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부터 형성된 기업가정신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오혜섭 외, 2014).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기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정연우·반성식(2008), 이현숙·백민정(2012) 등과 같은 예외적인 연구들을 제외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예컨대, 이현숙·백민정(2012)은 청소년의 개인특성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연구대상을 기업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결과에 대한 일반화가 제한적이라는 점과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위험감수성, 혁신성 등과 같은 다른 기업가정신 요인들은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또한 정연우·반성식(2008)은 창업교육과 창업의지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창업교육과 개인적 특성 외에 청소년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 기업가정신이 청소년들의 창업의지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학업성적을 조절변수로 상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은 일반인과는 다르게 학교라는 집단에 속해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성적이라는 일반인들과는 차별되는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업성적은 청소년들이 졸업 후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사회에 나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학업성적이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들의 창

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학업성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을 고려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기업가정신 특성이 청소년들의 창업의지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둘 사이의 관계에서 학업성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연구가설을 도출하기 위한 관련 문헌들을 검토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일련의 연구가설을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설명하고 제4장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5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관련문헌 검토 및 연구가설 설정

2.1 관련문헌 검토

창업은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Hisrich & Brush(1985)는 창업을 위험을 감수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함으로써 보상과 만족을 누리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그 외에도 Schumpeter(1934)는 창업을 창조적 파괴의 힘으로 정의하였으며, Gartner(1990)는 이익을 목적으로 조직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과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을 바탕으로 이루어 졌다. 계획된 행동이론이란 사회적 규범과 인지된 행동의 통제력, 그리고 행동에 대한 태도가 개인의 특정행동에 대한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Ajzen, 1991). 이 이론을 바탕으로 창업의지를 규명하기 위한 많은 국내연구들이 이루어 졌다(김종운, 2014; 악명 외, 2014; 이현숙·백민정, 2012) 예컨대, 악명 외(2014)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계획된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개인의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인지된 행동의 통제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하게 김종운(2014)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연구하였는데, 계획된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규범, 인지된 행동의 통제력, 행동에 대한 태도 모두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계획된 행동이론으로 창업의지를 설명하는 연구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은 창업가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진행하였다(박지유·양해술, 2014; 윤남수, 2012; 이신남, 2014; 장성희·마운주, 2011; 조준희·김찬중, 2015).

이들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창업의지를 갖는 요인으로 기업가정신을 제시하였다. 기업가정신이라는 개념 역시 연구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Stevenson(1983)

은 기업가정신을 기업을 설립하거나 혁신 또는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으며, Baron & Shane(2007)은 기회를 추구하고 혁신적인 행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기업가정신을 연구한 학자들은 기업가정신을 크게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 등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Covin & Slevin, 1991; Lumpkin & Dess, 1996; Miller, 1983).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으로 나누어 위 세 가지 요인들이 일반인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과 동일한 영향을 청소년들에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많은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위험감수성향을 기업가정신의 한 요인으로 제시하며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해왔다(김영문·전지은, 2009; 이주현·변광학, 2011; 장수덕·이재훈, 2013; 조영준·이승희, 2012). 이는 위험성이 크다는 창업의 특성 때문에 창업자의 위험감수성향이 창업의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김영문·전지은(2009)은 국내의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에 뜻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내·외부적 요인들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내부적 특성을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내적통제의 소재 등으로 나누고, 외부적 특성을 사회적 지원세력, 성공적 역할모델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위험감수성향을 포함한 내부적, 외부적 특성들이 모두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장수덕·이재훈(2013)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연구한 결과, 위험감수성향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영준·이승희(2012)도 창업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성취욕구, 사업전략, 위험감수성 등의 요인들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즉,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위험감수성향이 창업의지를 갖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위험감수성을 창업의지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상정하였다.

위험감수성 외에도 많은 선행연구들은 창업가의 혁신성을 창업의지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이신남, 2014; 이정원 외, 2013). 창업가가 혁신성을 갖고 있다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새로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이정원 외, 2013).

이러한 이유로 선행연구들은 혁신성을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예컨대, 이신남(2014)은 경기도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저자는 기업가정신의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이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높아진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정원 외(2013)의 연구에서도 혁신성, 자기효능감, 성과지향성, 내적 통제성, 위험감수성 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각 특성들이 성별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나

타냈었지만 혁신성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혁신성과 창업의지 간에 유의한 영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주헌·변광학(2011)은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저자들은 이 연구에서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 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연구 결과, 위험감수성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혁신성과 진취성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혁신성이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혁신성을 창업의지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상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들은 진취성을 기업가정신의 한 요소로 보고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권혁기·손현일, 2014; 박지유·양해술, 2014; 유봉호, 2013; 이신남, 2014). 예를 들어 유봉호(2013)는 청년창업자의 심리특성이 창업성공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위험감수성, 진취성 등의 심리 특성들이 창업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창업효능감은 창업 성공 가능성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으로, 박지유·양해술(2014)은 창업대학원생, 예비창업자, 벤처전문대학원생 등 550명을 대상으로 창업가 특성과 창업의지간의 영향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진취성이 남자 39세 이하에서는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전체를 대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이신남(2014)의 연구에서는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이 창업의지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진취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진취성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결과가 각 연구마다 상이하여 본 연구에서는 진취성이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취성을 창업의지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상정하였다.

한편, 일부의 연구들만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해왔다(안선영 외, 2011; 오해섭 외, 2014; 이현숙·백민정, 2012).

먼저 오해섭 외(2014)는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들이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지수준이 낮고,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들의 창업 의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불확실한 창업보다는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창업관련 지식과 노하우가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기부터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업의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안선영 외(2011)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창업과 기업가정

신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들은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남자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들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창업의 방법을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을 보다 활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현숙·백민정(2012) 역시 청소년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창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 낮음을 지적하며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의 함양과 창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2.2 연구가설 설정

2.2.1 위험감수성과 창업의지

위험감수성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개인의 특성을 의미한다(권혁기·손현일, 2014; 이주헌·변광학, 2011). 유봉호(2013)는 창업이 높은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창업자는 위험감수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봉호(2013)의 연구에서는 위험감수성향이 높을수록 창업효능감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장수덕·이재훈(2013)도 위험감수성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김영문·전지은(2009)은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위험감수성향과 성취욕구가 높을수록 창업의지도 높아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마찬가지로, 조영준·이승희(2012)도 국내의 대학생들과 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사업전략 등과 같은 창업특성들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위험감수성과 사업전략, 성취욕구 등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창업에는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창업자는 다양한 심리적, 재무적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다(김계섭·배금연, 2004). 이러한 상황에서 창업자가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이 강할수록 다양한 심리적, 재무적 위험을 수반하는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내릴 수 있어 창업자의 창업의지가 높아질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청소년들의 위험감수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2 혁신성과 창업의지

혁신성은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이정원 외, 2013). 창업은 기존의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통

해서도 가능하지만 보다 성공적인 창업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능력인 혁신성(이정원 외, 2013)이 높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가 용이할 것이다(권혁기·손헌일, 2014; 윤성욱·박성일, 2008; 장성희·마운주, 2011).

창업자는 초기 외부환경의 불확실성과 내부자원의 제약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활동들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혁신성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윤남수, 2012; 이정원 외, 2013; 이주현·변광학, 2011; 장성희·마운주, 2011). 예를 들어, 이정원 외(2013)는 대학생들의 창업특성과 창업의지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혁신성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와 유사하게, 이신남(2014) 역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저자는 혁신성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혁신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며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개발하는 것에 적극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적극성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결국 창업의지도 높일 수 있다(권혁기·손헌일, 2014; 윤성욱·박성일, 2008; 이정원 외, 2013; 이주현·변광학, 2011; 장성희·마운주, 2011).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2: 청소년들의 혁신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3 진취성과 창업의지

진취성은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제시하고자 하는 성향(박지유·양해술, 2014), 또는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하여 남들보다 앞서 행동하려는 성향(유봉호, 2013)을 의미한다. 진취성 역시 개인의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봉호(2013)는 청년창업자의 심리특성과 내재적 동기가 창업성공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진취성이 높을수록 창업성공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하게, 박지유·양해술(2014)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창업대학원생과 창업교육을 받은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 결과에서 진취성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윤남수(2012)는 기업가정신을 진취성, 위험감수성, 혁신성 등으로 분류하여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서는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진취성이 높을수록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능동적인 움직임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기 때문에 창업의지가 높아질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3: 청소년들의 진취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4 학업성적의 조절효과

일반인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청소년들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청소년들의 학업이다. 청소년들은 학교를 다닌다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또한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성적이 행동이나 생각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진학, 취업, 창업 등 다양한 진로방향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

이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이 바로 성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성적이 높으면 우리나라의 구조나 여건상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좋은 대학으로의 진학이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목표로 학업에 정진하고 있다(오해섭 외, 2014). 또한 성적이 높을수록 개인이나 부모님의 대학진학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창업과 같은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이 낮아 질 수 있다.

또한 높은 성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활동이나 생각보다는 학업 성적에 더욱 몰입하는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진취적인 행동보다는 안정적인 선택을 하려는 경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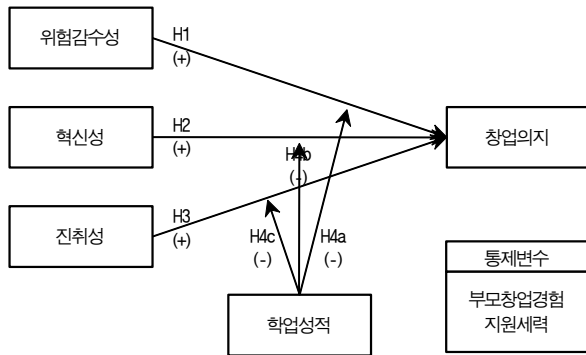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학업성적이 청소년의 기업가정신(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를 부(-)의 방향으로 조절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a: 청소년들의 학업성적은 위험감수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부(-)의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가설 4b: 청소년들의 학업성적은 혁신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부(-)의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가설 4c: 청소년들의 학업성적은 진취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부(-)의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도식화한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III. 연구방법

3.1 연구표본과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청소년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청소년을 고등학교 3학년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학년들에 비해 고등학교 3학년은 졸업 후 대학 진학이나 취업 및 창업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중요한 조절변수인 성적을 측정함에 있어 다른 학년에 비해 보다 엄밀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순천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기업가정신(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특히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가 학업성적에 의해 달라질 것으로 상정하고 학업성적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먼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지의 초안을 작성한 후 창업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다. 그리고 난 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문지를 수정한 후 설문조사에 사용할 설문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진행하였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이중 251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3.2 변수의 측정

3.2.1 종속변수 및 통제기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창업의지이다. 창업의지는 권영국·윤혜현(2013) 및 이인숙 외(2013)의 연구를 참고하여 i) 언젠가는 내 자신의 업체를 가지고 싶음, ii) 업체를 하나 소유하여 운영할 뜻이 있음, iii) 종업원으로 있기보다는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고 싶음, iv) 향후 창업할 의향이 있음, v) 다른 직무보다 창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임 등 총 5개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리커트식 5점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음, 5=전적으로 동의함)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종속변수의 아래에 독립변수들과 조절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다중 회귀분석기법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3.2.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독립변수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으로서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이다. 먼저 위험감수성은 Chen et al.(1998), Gurel et al.(2010), Koh(1996), Naman & Slevin(1993), 김영문·전지은(2009), 유봉호(2013) 및 이정원 외(2013)의 연구를 토대로 i) 투자한 사업의 위험부담이 있어도 수익성이 좋다면 계속 투자할 생각임, ii) 안정보다 성장을 지향하는 편임, iii) 다소 위험이 따르더라도 새롭고 도전적인 일을 좋아함, iv)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나, 개발위험이 높은 과제를 선호함, v) 위험을 무릅쓰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행동함, vi) 잠재적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약간은 무모하더라도 도전을 함 등 총 6개 문항들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리커트식 5점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음, 5=전적으로 동의함)로 측정하였다.

혁신성은 Chen et al.(1998), Gurel et al.(2010), Koh(1996) 및 이정원 외(2013)의 연구를 토대로 i) 새로운 물건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좋아함, ii) 최신 트렌드에 관심이 많음, iii) 문제 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방법, 독창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함, iv) 문제해결 과정에서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중시함, v)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함 등 총 5개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리커트식 5점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음, 5=전적으로 동의함)로 측정하였다.

또한 진취성은 Becherer & Maurer(1999)와 유봉호(2013)의 연구를 토대로 i) 현재의 문제보다 미래의 기회를 먼저 생각하는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 ii)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 iii)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음, iv)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있음, v) 내가 관여하는 모든 일에 대한 성취욕구가 큼 등 총 5개 문항들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리커트식 5점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음, 5=전적으로 동의함)로 측정하였다.

3.2.3 조절변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과 종속변수(창업의지)사이의 관계가 학업성적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선택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성적은 본인의 고등학교 3년간의 내신등급(1-9등급)을 가입하는 형식으로 측정하였다. 이때 등급이 낮을수록 성적이 좋은 경우이기 때문에 해석의 편의를 위해 역코딩을 통해 학업성적 변수를 새롭게 생성(10-내신등급)하였다.

3.2.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외에 다음과 같은 통제 변수들을 회귀분석 모델에 포함시켰다. 먼저 부모님의 창업 여부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부모님의 창업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을 시, 이것을 간접 경험한 학생들에게 창업의 긍정적인 유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그

반대의 경우 그 학생들의 창업 결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창업 여부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지원세력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개인이 창업을 할 경우 정서적 혹은 기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세력의 존재여부는 향후 창업과정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영문·전지은, 2009).

왜냐하면 사회적 지원세력은 창업과정에 있어 동기부여, 정보제공, 전문적인 조언과 상담 등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때

문이다(김영문·전지은, 2009). 사회적 지원세력은 김영문·전지은(2009)의 연구를 토대로 i) 창업과 관련된 조언이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음, ii) 창업과 관련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음, iii) 창업과 관련하여 의지할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음 등 총 3개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리커트식 5점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음, 5=전적으로 동의함)로 측정하였다. <표 1>은 이상의 측정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변수 및 측정

변수명		측정방법	출처
종속 변수	창업의지	i) 언젠가는 내 자신의 업체를 가지고 싶음, ii) 업체를 하나 소유하여 운영할 뜻이 있음, iii) 종업원으로 있기보다는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고 싶음, iv) 향후 창업할 의향이 있음, v) 다른 직무보다 창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임 등 총 5개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리커트식 5점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음, 5=전적으로 동의함)로 측정	권영국·윤혜현(2013), 이인숙 외(2013)
독립 변수	위험감수성	i) 투지한 사업의 위험부담이 있어도 수익성이 좋다면 계속 투자할 생각임, ii) 안정보다 성장을 지향하는 편임, iii) 다소 위험이 따르더라도 새롭고 도전적인 일을 좋아함, iv)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나, 개발위험이 높은 과제를 선호함, v) 위험을 무릅쓰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행동함, vi) 잠재적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약간의 무모하더라도 도전을 함 등 총 6개 문항들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리커트식 5점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음, 5=전적으로 동의함)로 측정	Chen et al.(1998), Gurel et al.(2010), Koh(1996), Naman & Stevin(1993), 김영문·전지은(2009), 유봉호(2013), 이정원 외(2013)
	혁신성	i) 새로운 물건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좋아함, ii) 최신 트렌드에 관심이 많음, iii) 문제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방법, 독창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함, iv) 문제해결 과정에서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중시함, v)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함 등 총 5개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리커트식 5점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음, 5=전적으로 동의함)로 측정	Chen et al.(1998), Gurel et al.(2010), Koh(1996), 이정원 외(2013)
	진취성	i) 현재의 문제보다 미래의 기회를 먼저 생각하는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 ii)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 iii)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음, iv)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있음, v) 내가 관여하는 모든 일에 대한 성취욕구가 큼 등 총 5개 문항들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리커트식 5점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음, 5=전적으로 동의함)로 측정	Becherer & Maurer(1999), 유봉호(2013)
조절 변수	학업성적	10-내신등급	
통제 변수	지원세력	i) 창업과 관련된 조언이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음, ii) 창업과 관련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음, iii) 창업과 관련하여 의지할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음 등 총 3개 문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리커트식 5점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음, 5=전적으로 동의함)로 측정	김영문·전지은(2009)
	부모님 창업경험	더미 코딩: 부모님이 창업한 경험이 없으면 '0', 있으면 '1'	

IV. 실증분석 결과

<표 2>는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의 회귀모형에 포함된 측정변수의 타당성 검증에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으며, 요인들 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각회전방식 (Varimax)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결과 <표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각 구성개념들의 적재 값들이 모두 0.5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들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변수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값을 계산한 결과 각각의 Alpha 값이 0.6이상으로 나타나 변수들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은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과 상관

관계 분석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변수 간 상관관계는 모두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상태지수 (Condition Index)값이 30이하이고, VIF 값이 10이하이면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의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데(Chatterjee et al., 2006; Hair et al., 1998), 본 연구에서는 상태지수 (CI)의 최대값이 20.573 (최소: 1.000, 평균: 8.710), VIF의 최대값이 1.501 (최소: 1.029, 평균: 1.198)로 나타났다. 이러한 값들은 모두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결과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	지원세력
위험감수성 1	.706	.048	.066	.013
위험감수성 2	.773	.238	.052	.024
위험감수성 3	.753	.260	.128	.226
위험감수성 4	.705	.108	.021	.241
위험감수성 5	.708	.141	.133	.071
위험감수성 6	.740	.270	.153	.007
혁신성 1	.242	.687	.139	.058
혁신성 2	.153	.673	.120	.132
혁신성 3	.284	.741	.168	.055
혁신성 4	.044	.717	.163	.177
혁신성 5	.209	.772	.107	.077
진취성 1	.182	.218	.538	-.050
진취성 2	.110	.084	.849	.017
진취성 3	.045	.091	.859	.092
진취성 4	.023	.095	.864	.081
진취성 5	.129	.217	.782	.051
지원세력 1	.116	.157	.120	.844
지원세력 2	.128	.125	.060	.907
지원세력 3	.122	.117	-.025	.836
Eigen Value	3.526	3.290	2.987	2.430
공통변량(%)	18.560	17.315	15.722	12.789
누적공통변량(%)	18.560	35.875	51.597	64.386
Cronbach' s Alpha	0.856	0.822	0.863	0.862

<표 3> 변수 간 기초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2)	(3)	(4)	(5)	(6)	(7)
(1) 창업의지	1						
(2) 부모창업경험	.102	1					
(3) 지원세력	.427**	.169**	1				
(4) 위험감수성	.499**	.007	.287**	1			
(5) 혁신성	.422**	-.043	.314**	.475**	1		
(6) 진취성	.301**	.006	.154*	.274**	.386**	1	
(7) 학업성적	-.111	.054	-.055	.039	.073	.301**	1
평균	3.077	0.410	3.901	2.850	3.511	3.490	5.776
표준편차	0.967	0.492	1.013	0.709	0.654	0.677	1.603
최대값	5.000	1	5.000	5.000	5.000	5.000	5.000
최소값	1.000	0	1.000	1.000	1.000	1.000	1.000

(*) p<0.05, **p<0.01 (양측검정)

<표 4> 회귀분석 결과

		창업의지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통제변수	부모창업경험	0.030 (0.518)	0.061 (1.184)	0.063 (1.227)	0.063 (1.225)	0.058 (1.151)
	지원세력	0.423*** (7.217)	0.246*** (4.456)	0.231*** (4.209)	0.245*** (4.434)	0.238*** (4.415)
독립변수	위험감수성 (H ₁)		0.311*** (5.282)	0.102 (0.564)	0.313*** (5.307)	0.301*** (5.223)
	혁신성 (H ₂)		0.151* (2.443)	0.162** (2.643)	0.037 (0.208)	0.173** (2.850)
	진취성 (H ₃)		0.166** (2.287)	0.178** (3.121)	0.164** (2.856)	0.667*** (4.357)
조절변수	학업성적		-0.176*** (-3.297)	-0.662** (-3.166)	-0.351 (-1.352)	-0.642** (-2.695)
조절효과	위험감수성 × 학업성적 (H ₄)			0.657* (2.402)		
	혁신성 × 학업성적 (H ₅)				0.218 (0.689)	
	진취성 × 학업성적 (H ₆)					-1.097** (-3.519)
R ²		0.184	0.396	0.410	0.397	0.426
Adjusted R ²		0.177	0.381	0.393	0.379	0.409
ΔR ²			0.212	0.226	0.213	0.242
F		27.596***	25.995***	23.553***	22.300***	25.116***

(*) 회귀계수는 표준화 계수이며, 괄호 안은 t값, * p<0.05, ** p<0.01, *** p<0.001

최종적인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고 있다. <표 4>에서 모델 1은 독립변수와 상호작용 변수들을 제외하고 통제 변수들만을 회귀분석 모형에 포함한 기준 모델이다. 모델 2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그리고 통제변수만을 포함한 회귀분석 모형이다. 그리고 모델 3부터 모델 5까지는 독립변수, 조절변수 및 통제변수와 각각의 상호작용 변수들을 포함한 모델이다. 먼저 모델 1을 살펴보면 지원세력($p < 0.001$)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원세력을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일수록 창업의지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모델 2에서는 지원세력($p < 0.001$), 위험감수성($p < 0.001$), 혁신성($p < 0.05$), 진취성($p < 0.01$)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p < 0.001$)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험감수성이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1, 혁신성이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2, 그리고 진취성이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3은 모두 지지되었다. 반면 조절변수인 학업성적은 창업의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학업성적이 좋은 청소년의 경우 창업의지가 낮아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모델 3에서는 위험감수성과 학업성적 간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변수(위험감수성 \times 학업성적)를 포함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호작용 변수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p < 0.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성적이 좋은 청소년 일수록 위험감수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강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적이 위험감수성과 창업의지 간의 긍정적 관계를 약화시키는 부(-)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가설 4a와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가설4a는 지지되지 않았다.

같은 방법으로 모델 4에서는 혁신성과 학업성적 간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변수(혁신성 \times 학업성적)를 포함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상호작용 변수는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b 역시 지지되지 않았다.

모델 5에서는 진취성과 학업성적 간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변수(진취성 \times 학업성적)를 포함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호작용 변수가 창업의지에 유의한 부(-)의 영향($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성적이 좋은 청소년 일수록 진취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감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4c는 지지되었다.

V. 토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기업가정신(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학업성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실증분석 하고 있다. 251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감수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로 나타났다. 창업은 그 자체로 높은 불확실성과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쉽게 창업을 시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많은 선행연구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개인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이 클수록 창업의지 역시 높아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김영문·진지은, 2009; 장수덕·이재훈, 2013),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관계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을 지닐수록 다양한 심리적, 재무적 위험을 수반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용이하고(김계섭·배금연, 2004), 이러한 특성이 창업의지를 높이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혁신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많은 선행연구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청소년들의 혁신성은 새로운 방법이나 독창적인 시도로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게 만들어 창업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신남, 2014; 이정원 외, 2013). 셋째, 진취성 역시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취성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을 지니게 되고 능동적인 움직임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성향을 높임으로써 창업의지를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진취성이 높을수록 남들보다 앞서 행동하려고 하고(유봉호, 2013) 새로운 것을 학습하려는 노력을 통해 창업의지가 강화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학업성적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성적은 위험감수성과 창업의지간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한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는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안정성을 선호하게 되어 위험감수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약화될 것이라는 연구가설 4a의 예상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일부의 선행연구들이 강조하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에서 찾아볼 수 있다(정대용 외, 2013). 학생들은 본인의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자신의 역량에 대한 믿음, 즉 자기효능감이 높아져 위험감수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업성적은 혁신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학업성적이 혁신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부(-)의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적은 진취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부(-)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불확실한 창업보다는 안정적인 진로기회를 탐색하려 하기 때문에 진취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창업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실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기부터 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안선영 외, 2011), 중요성에 비해 청소년기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극히 예외적인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기업가정신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하지는 못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창업의지는 실제 창업으로 곧바로 이어지기 보다는 향후 청년창업 등 진로의 한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하고 청소년 기업가정신 제고의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기관의 정책 입안 및 연구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 향후 기업가정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의 학자들은 청소년들이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안선영 외, 2011), 또 다른 학자들은 청소년기에 기업가정신 교육이 진행될수록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오혜섭 외, 2014). 하지만 청소년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과성을 규명하지는 못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가 청소년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창업관련 교육기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정신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학업성적을 조절변수로 상정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있어 학업성적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으로 학업성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학업성적을 조절변수로 상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청소년의 진취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약화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청소년 기업가정신에 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의미 있는 이론적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지니고 있다. 첫째 연구의 표본 집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위해 순천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모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51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하여 표본 수 자체는 적지 않으나, 한 집단 내에서만 설문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향후 연구에서는 마이스터고나 비즈쿨과 일반계 고등학교를 포함한 연구표본을 확보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적의 조절효과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조절변수들을 고려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에 국한하여 살펴보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 외에 관계적 특성들과 같은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

- 강경균·이춘우·김주영(2015),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I: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모형 개발 및 창업 활성화 방안*(15-R14-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권영국·윤혜현(2013), 외식관련전공 대학생의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조리학회지*, 19(4), 193-210.
- 권혁기·손현일(2014), 기업가정신과 종업원의 혁신행동지향성에 대한 정서적 몰입의 매개효과, *경영정보연구*, 33(3), 77-92.
- 김계섭·배금연(2004), 외식산업 창업영향 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관광경영학회 학술연구발표 논문집, *대한관광경영학회 제24차 정기학술발표대회*, 대구: 대한관광경영학회.
- 김영문·전지은(2009), 개인의 내부적·외부적 요인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경영경제*, 42(2), 39-56.
- 김영중·권영국·윤혜현(2014),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외식경영연구*, 17(2), 7-26.
- 김종운(2014),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창업 동기 및 창업계획시기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9(1), 79-87.
- 박재홍·김성환(2011), 청소년기 뇌 발달과 인지, 행동 특성, *생물치료정신의학*, 17(1), 11-20.
- 박지유·양혜술(2014), 창업가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교육을 이수한 예비창업자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9(2), 97-107.
- 악명·윤현진·박상문(2014),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국적과 전공의 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 9(4), 87-96.
- 안선영·김희진·김태령(2011), *창업 기업가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한국·핀란드 비교연구*(11-R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혜섭·맹영임·문호영(20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의식조사*(14-R17-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봉호(2013), 청년창업자의 심리특성과 내재적 동기가 창업성공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6(10), 2669-2690.
- 윤남수(2012),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동기 요인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산업경제연구*, 25(2), 1537-1557.
- 윤성욱·박성일(2008),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창업정신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본사의 시장지향성과 가맹점 관계몰입의 매개

- 효과, *유통연구*, 13(3), 101-126.
- 이미자·김중규(2013), 창업의지와 기업가정신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책연구*, 11(9), 55-65.
- 이신남(2014),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회계교육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회계연구*, 19(3), 171-190.
- 이유진·박선영·이상희(2015),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I: 위기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15-R1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인숙·김외순·나영아(2013), 청년사업을 위한 성장요인이 창업역량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조라·외식전공 대학생 중심으로, *한국조리학회지*, 19(4), 25-39.
- 이정원·이애주·김남현(2013), 관광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창업특성과 창업의도와의 관계: 개인적 환경요인의 조절효과, *관광레저연구*, 25(2), 267-386.
- 이주현·변광학(2011),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벤처창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벤처창업학회 2011 가을 정기학술대회, 서울: 한국벤처창업학회.
- 이현숙·백민정(2012), 청소년의 개인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관적 규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15(2), 65-84.
- 장성희·마윤주(2011), 기업가정신이 시장지향성 및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4(5), 2777-2802.
- 장수덕·이재훈(2013), 대학생 e-비즈니스 창업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e-비즈니스연구*, 14(3), 37-53.
- 정대용·양준환·김준광(2013), 자기효능감이 창업참여도를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28(5), 543-572.
- 정연우·반성식(2008), 청소년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3(1), 45-67.
- 조영준·이승희(2012), 창업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성과를 매개효과로, *디지털정책연구*, 10(5), 143-154.
- 조준희·김찬중(2015),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교육과 창업참여의 조절효과, *인적자원개발연구*, 18(4), 53-75.
- 창조경제타운(2016), *창조경제 소개*, Retrieved (2016.05.12.) from <https://www.creativekorea.or.kr/main>
- 최인재·임지연·김형주(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III (08-R0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통계청(2016), *201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Retrieved (2016.05.11.)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ko/5/2/index.board?bmode=read&aSeq=351117.
- 한정희·김정호(2013), 기업가정신교육과 창업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6(6), 2777-2797.
- Ahn, S. Y., Kim, H. J. & Kim, T. R.(2011), *Youth Perception of Entrepreneurship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 Comparison of Korean and Finnish Youth*(11-R14), Seoul: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Baron, R. & Shane S.(2007), *Entrepreneurship: a Process Perspective*, Toronto: Nelson Education.
- Becherer, R. C. & Maurer, J. G.(1999), The Proactive Personality Disposition and Entrepreneurial Behavior among Small Company President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7(1), 28-36.
- Blanchflower, D. G. & Oswald, A. J.(1998), What Makes an Entrepreneur?, *Journal of Labor Economics*, 16(1), 26-60.
- Chang, S. D. & Lee, Z. H.(2013), A Study on the Influencing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E-Business Start-up Intention, *The e-Business Studies*, 14(3), 37-53.
- Chatterjee, S., Hadi, A. S. & Price, B.(2006), *Regression Analysis by Example*, New York: Wiley-Interscience.
- Chen, C. C., Greene, P. G. & Crick, A.(1998), Doe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Distinguish Entrepreneurs from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4), 295-316.
- Cho, J. H. & Kim, C. J.(2015),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Moder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Participation, *Korean Journal of Resources Development*, 18(4), 53-75.
- Choi, I. J., Lim, J. Y. & Kim, H. J.(2008), *Korean Youth Development Indicators Survey III: General Report(08-R03)*, Seoul: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 Chung, D. Y., Yang, J. H. & Kim, C. K.(2013),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Particip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Chinese Students,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28(5), 543-572.
- Chung, Y. W. & Bahn, S. S.(2008), A Study on the Teenager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3(1), 45-67.
- Covin, J. G. & Slevin, D. P.(1991),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ship as Firm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1), 7-25.
- Creative Economy Town(2016), *Introduction the Creative economy*, Retrieved May 11, 2016 from <http://policy.creativekorea.or.kr/>.
- Gartner, W. B.(1990), Some Suggestions for Research on Entrepreneurial Traits and Characteristic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4(1), 27-37.
- Gurel, E., Altinay, L. & Daniele, R.(2010), Tourism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37(3), 646-669.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NJ: Prentice-Hall.
- Han, J. H. & Kim, J. H.(2013), A Study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Decision Makings, *Review of Business and Economics*, 26(6), 2777-2797.
- Hisrich R. D. & Brush, C. G.(1985), Women and Minority Entrepreneurs: A Comparative Analysi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566-572.
- Jang, S. H. & Ma, Y. J.(2011),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and Market Orientation on the Social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 Focused on the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4(5), 2777-2802.
- Jo, Y. J. & Lee, S. H.(201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Performa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5), 143-154.
- Kang, K. K., Lee C. W. & Kim, J. Y.(2015), *Study for Fostering Youth Entrepreneurship and Encouraging start-up II: Study on Plans to Develop Entrepreneurship Education Model and Encourage start-up for Youth (15-R14-1)*, Sejong: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 Kim, G. S. & Bae K. Y.(200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oodservice Entrepreneurial Influence Factor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Management, *Proceeding of 24th Conference of KASTM, 24th Conference of KASTM*, Daegu: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Management.
- Kim, J. W.(2014), An Analysis of Factors on College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ed on the Motivation and Intended Startup Tim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1), 79-87.
- Kim, Y. J., Kwon, Y. K. & Yoon, H. H.(201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College-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17(2), 7-26.
- Kim, Y. M. & Jeon, J. E.(2009),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Business Management Review*, 42(2), 39-56.
- Knight, F. H.(1921), *Risk, Uncertainty and Profit*, New York: Hart, Schaffner and Marx.
- Koh, H. C.(1996), Testing Hypotheses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A Study of Hong Kong MBA Students,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1(3), 12-25.
- Kwon, H. K. & Son, H. I.(2014),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on Innovational Behavior Orientation: Focused on Examining Mediator Effects of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Review*, 33(3), 77-92.
- Kwon, Y. G. & Yoon, H. H.(2013),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Foodservi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by Gender, *The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19(4), 193-210.
- Lee, E. G., Park, S. Y. & Lee, S. H.(2015), *Study on Measures to Develop Entrepreneurship Education Model and to Encourage Start-up for Youth II: Study on Measures to Develop Entrepreneurship Education Model and to Encourage start-up for At-risk Youth(15-R14)*, Sejong: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 Lee, H. S. & Baek, M. J.(2012),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Examining the Moderating Role of Subjective Norm,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15(2), 65-84.
- Lee, I. S., Kim, O. S. & Rha, Y. A.(2013), A Study on the Effect of Young Entrepreneurs' Growth Factors on Entrepreneurial Capabilit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ed on the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ulinary and Foodservice, *The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19(4), 25-39.
- Lee, J. H. & Bian, G. X.(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Orientation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College Students, *Proceedings of Conference on Business Venturing 2011, Conference on Business Venturing Fall 2011*, Seoul: The Korean Society of Business Venturing.
- Lee, J. W., Lee, A. J. & Kim, N. H.(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Trait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ocultural Background: The Case of Tourism and Hospitality Students,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25(2), 267-286.
- Lee, M. J. & Kim, J. G.(2013),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Succes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9), 55-65.
- Lee, S. N.(2014),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on Accounting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Korea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9(3), 171-190.
- Lumpkin, G. T. & Dess, G. G.(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 Miller, D.(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Naman, J. L. & Slevin, D. P.(1993), Entrepreneurship and the Concept of Fit: A Model and Empirical Test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4(2), 137-153.
- Oh, H. S., Maeng, Y. I. & Moon, H. Y.(2014), *Study for Fostering Youth Entrepreneurship and Encouraging start-up I: An attitude Survey about Entrepreneurship and start-up(14-R17-1)*, Sejong: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 Park, J. H. & Kim, S. H.(2011), Development of the Adolescent Brain and Behavioral and Cognitive Characteristic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Therapies in Psychiatry*, 17(1), 11-20.
- Park, J. Y. & Yang, H. S.(2014),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ing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mpleted prefounde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2), 97-107.
- Schumpeter, J. A.(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n Inquiry into Profits, Capital, Credit, Interest, and the Business Cycle*, Transaction publishers.
- Statistics Korea(2016), *Employment Trend*, Retrieved May 11, 2016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ko/5/2/index.board?bmode=read&aSeq=351117.
- Stevenson, H. H.(1983), *A Perspective on Entrepreneurship*,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Business School.
- Yoo, B. H.(2013), The Effect of Young Entrepreneu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Intrinsic Motivation on the Possibility of Start-up Success,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6(10), 2669-2690.
- Yoon, N. S.(2012), The Effect of Potential Entrepreneurial Motivations on Entrepreneurship and Commitment to Starts-up: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5(2), 1537-1557.
- Yoon, S. W. & Park, S. I.(2008),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of Franchisees on Their Business Performance: Mediation Effects of Market Orientation and Relationship Commitment, *Journal of Channel and Retailing*, 13(3), 101-126.
- Yue, M., Yun, H. J. & Park, S. M.(2014),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nd China: Moderating effect of Nationality and Major,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4), 87-96.

Youth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cholastic Performance

Choi, Yong-seok*
Lee, Jae-eun**
Kang, Ji-won***
Kim, Sun-gu****
Han, Ga-rok*****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the effects of youth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Especially, we considered scholastic performance as a moderat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h entrepreneurship and their entrepreneurial intention. An empirical analysis on 251 students attending their third year of Suncheon High School reveal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youth entrepreneurship (risk taking, innovativeness and proactiveness) significantly positive affecte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result corresponds to what many preceding studies emphasize, implying that when risk taking, which enables perseverance through uncertain situations, increases; innovativeness, which enables breaking away from existing frameworks, increases; and proactiveness, which creates new opportunities through future-oriented behavior, increase,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teenagers also increases. Second, a review of the interaction effect of scholastic performance discovered evidence that scholastic performance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roactivenes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youth toward a negative(-) direction. In other words, proactiveness positively effec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but higher scholastic performance imply that such positive tendencies become weakened.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will be able to provide significant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in carrying out follow-up studies on the youth entrepreneurship, which has been, up to now, relatively neglected.

Keywords: Youth Entrepreneurship, Risk Taking, Innovativeness, Proactiveness, Scholastic Performance, Entrepreneurial Intention

* First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Logistic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drasto@suncheon.ac.kr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Business and Commerce,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sky2u@suncheon.ac.kr

*** Co-Author, Undergraduate, Division of Business and Commerce,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k_jiwon_cc@naver.com

**** Co-Author, Head of Team,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Business Support Foundation, South Korea, ksgent@suncheon.ac.kr

***** Co-Author, Manager,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Business Support Foundation, South Korea, cahgr1211@suncheon.ac.kr